



초청특강, 신진가금학자 특강 등 다양한 정보와 연구 발표의 장

- 오당 학술상에 이준헌 충남대 교수 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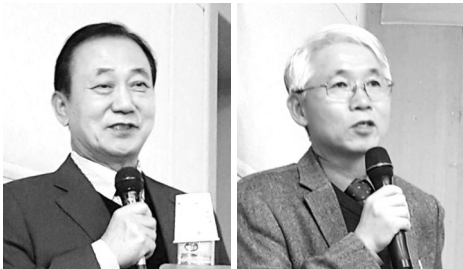


한 국가금학회(회장 모인필)가 지난 10~11일 양일간에 걸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금년 처음 제정된 오당 학술상을 비롯해 2016년도 학회를 위해 노력해온 회원 및 업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 전달되었다. 또한 금년 사단법인 인가와 함께 정관 변경내용 검토가 있었는데 평의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장(재무, 홍보, 산학협력, 학술, 기획, 회원관리, 포상, 국제협력, 학회지편집)에 대한 직무내용이 신설되었고, 사무실 소재지가 충남 성환에서 강원도 평창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평창으로 변경하였다. 임원변경에서는 홍영호 교수(중앙대학교)가 3년간 가금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박태섭 교수(서울대학교)가 1년간 회원관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금년부터 오봉국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대한양계협회 고문)가 쾌척한 1억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오당(梧堂) 학술상과 관련하여 포상규정 일부 개정작



▲ 모인필 회장



▲ 초청특강을 한 김인식 (주)체리부로 회장(좌)과 이성기 강원대 교수(우)

▶ 오당 학술상을 수상한 이준현 충남대학교 교수(좌)



업도 있었다. 모인필 회장은 2016년도 학회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한국가금학회지 발간에 많은 논문수를 투고해 학술지 등재지도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날 개최된 학술발표회에서는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과 강원대학교 이성기 교수를 특별초청하여 강의가 있었고 신진가금학자(신정화, 서동원 박사) 발표가 각각 있었다. 그리고 45편에 해당하는 포스터발표를 통해 새로운 연구를 선보였다. 또한 11일에는 9시부터 16편에 해당하는 주제로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초청 특강에서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은 '육계의 산업화, 육계 통합경영(Integration)'에 대한 강의에서 과거와 현재 육계산업의 변천과정에서 대한양계협회 김정소에서 42년전 발표한 육계의 생산지수가 123이었던 것이 금년 체리부로 농가의 생산지수가 325로 큰 발전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국내 계열화는 1960년대 이미 영육농산에서 시작한 바 있으며 90년 들면서 미국식 계열화가 도입·발전하여 이제는 계열화가 완숙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대학교 이성기 교수는 '계란의 항미생물성과 이용'을 통해 계란은 상온에서 쉽게 부패되지

않는 식품으로 만약 오염이 된다면 산란후 부주의로 장기간 저장한다든지 닭의 모체내 오염이나 일부산란기관으로부터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산란후 저장기간에 부패되는 경우는 1%로 극히 적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큐티클, 난각막, 난백의 점도, 난황막 등 물리적 방어체계와 희자(라이소자임 등) 및 노른자(포스비틴 등) 방어체계 등 화학적 방어체계를 통해 상온에서 쉽게 썩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신진가금학자 특강은 신정화(환경부) 박사가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포와 이동경로 추적조사'를, 서동원(충남대학교) 박사가 '한국 재래닭 실용화를 위한 유전자 표지의 발달'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정기총회에서 오당 학술상은 충남대학교 이준현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공적상은 연구분야에 서옥석(국립축산과학원), 황보종(국립축산과학원) 박사가, 저술분야에 이성기(강원대학교) 교수가, 행정분야에 김영민(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이, 봉사분야에 장인석(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각각 수상하였다. 감사패는 대한양계협회를 비롯 16개 업체에 돌아갔으며, 우수논문(구두, 포스터)에도 11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